



보
나
따
우
3
월
하
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우디스 간사님 출산 31					1
2	3	4	5	인천 출발 6	딜리 도착 7	8
9	YMCA 센터 첫 방문 10	떼똥어 교육 시작 11	12	13	14	YMCA 청년모임 참석 15
피스커피 새 단장 16	17	18	19	20	21	22
딜리 교회 방문 23	YMCA 센터 대청소 24	25	26	27	떼똥어 교육 종료 28	29

팀 및 팀원 소개



Bonitao는 떼뚱어로 잘생겼다는 뜻인 Bonita와 Bonito를 합친 말이다. Bonita는 여자에게 Bonito는 남자에게 사용한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11기 동티오르팀은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팀 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합성어인 'Bonitao'와 'Bonitoo' 중에서 게임을 통해 Bonitao로 결정하였다.

(여자 단원들이 가위바위보를 이겼다고 한다.)

정인기 : Jeffrey (Jeffriano Da Silva)

마운 붓 (Big Brother)

보니투 (Handsome)

테라 산타의 베컴

요즘 띠 동갑들과 축구하느라 힘드신 인기용

축구인

나카르 (Naughty)

센터에서 날뛰는 개구쟁이

리따(22세/단골 환자) :

“선생님! 이 사진 살릴 수 있을까요?”

포토샵 명의

생활의 달인

아주 조금 쓸모 있음

라디오 진행자

제프리의 보니따리오

YMCA 어깨 담당

주위의 권유로
어깨 운동 중

얀띠 도벤(Lover)

꼼꼼인기

깔끔인기

정 많고 인기 많은 정인기



김주희 : Jeni (Jenita Ximenes Mendes)

라오스 말라에

로피타 : “제프리 말라에(외국인), 토니 말라에, 리따 말라에, 제니 라(NO) 말라에”

습진 vs 아토피 vs 햇빛알레르기

팔에 난 피부병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

아마 제니 (Mother Jeni)

과일 꺾어줄 때의 자상함 그리고 잔소리...

마나 클라라(기연간사님)의 러버

양성애자 (양파성애자)

감성애자 (감자성애자)

양배추 장인

기연간사님 : “제니, 쪼그만해서 너무 귀엽다.”
(제니보다 1cm 큼)

여진아 언니 좀 그만 시켜...

과일 꺾기 셔틀

라 보니다 (No Pretty)

못생겼다고? 내가????????????????????

아이들에게겐 인기녀



이한결 : Toni (Antoni Perreira)

별명왕

엉터, 두더지, 혼또니 등등 끊임없이 나오는 별명들

라보니뚜 (No HandSome)

새침떼기

새침한 눈빛과 말투가 매력 포인트

(베짱)

떼똥어 우등생, 자습왕

토니리 (이무송) vs 토니안

오타쿠 아님

나니(수영)왕

부르주아

주 서식지 Hotel LAMELAU 수영장

기연 바라기

“내가 못 찍은 게 아니야,
니 얼굴이 그렇게 생긴거야”

우리 팀 사진기사

뽕뽕이 셔틀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돌려주는 일 뿐

밥 담당

정확히는 쌀 씻기 담당

팀의 보쿠르(똥똥보)를 책임진다.

방구쟁이

심여진 : Lita (Juleita Da Costa)

리더 본인을 제외한 회의에서 선출. 책임감은 없고 권리만 있다. 가끔씩 언니, 오빠들을 체벌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청천 같이 칼 같은 결단력은 덤

망나니
나카르 (Naughty)

(엠)보성이 너의 배…… (규?)

알린페토이꾼 (Lastborn)

보니따(Pretty) 티모르에서 만큼은 여신

동작 그만 밀장 빼기냐 **사기꾼**

언니가 꺾아준 과일 먹기만 하기

폭력배 “지금부터 체벌의 시간이 있습니다.”

노 메이크업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팀원의 심여진화

티모르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무뎨무뎨”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무뎨는 하얗다는 의미인데 전 별로 하얗지도 않은데…

무뎨무뎨 (White)

(답정너 ver.)



주변 인물 소개



양동화 감사님



오라시오 총장님



에두 감사님



김기연 감사님 (미혼)



우디스 감사님



조디 감사님



김승창 감사님



아빠바디 감사님



메리 블랙 그린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여행보침

3월 6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출국



충격 포착

발리에서 생긴 일

김○○씨와 정○○씨 발리 공항에서
단 둘이 있는 것을 포착

두 사람은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공항
구석에 조용히 앉아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 받는 듯 보였다.

(...) 본지에서 3개월 동안 추적
하였으나 포착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Disspatch

...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7일 동티모르 도착!

간략하게 동티모르를 소개하자면

동티모르 민주 공화국, 줄여서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의 티모르 섬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지리적으로는 티모르 섬의 동쪽과 서티모르 북쪽의 일부, 그리고 인접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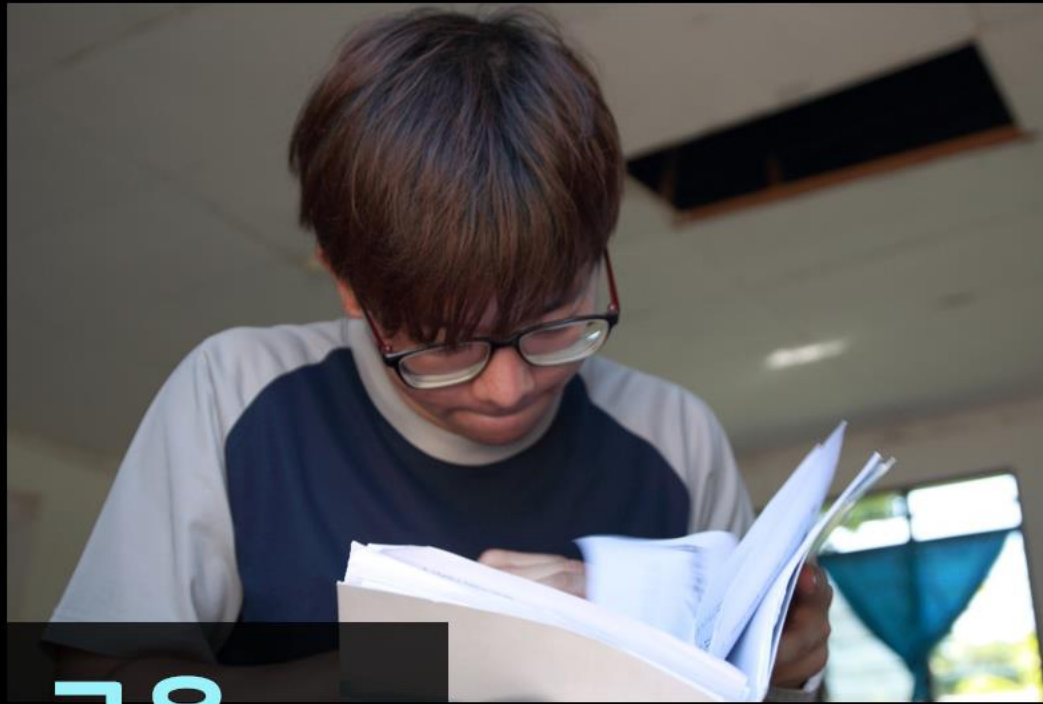
동티모르는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우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다. 한낮의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 이상으로 무덥다. 동티모르의 수도는 딜리이다.

우리의 활동 기관인 동티모르 YMCA는 수도 딜리의 외곽지역인 테라 산타에 위치해 있다. 동티모르 YMCA는 테라 산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활동과 청소년 축구팀을 운영하고, 한국 YMCA와 함께 공정무역 피스커피 업무를 맡고 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키백과에 검색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소개



떼뚫어 교육





YMCA 센터에서 진행된 떼뚱어 수업은 3월 11일부터 3월 28일까지 평일 오전에 이루어졌다.

수업은 아빠띠 간사님과 Timor YMCA 멤버인 메리가 맡아서 해주었다.

Obrigada Mestra! (감사합니다 선생님!)



떼뚱어를 배우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 하지만 생각보다 수업이 일찍 끝나서 아쉬웠어 ㅠ ㅠ (수업을 3주 밖에 안하다니...)



우선 떼뚱어를 알아가는 시간이 보람찼어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떼뚱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처음엔 막막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 여전히 의사소통에는 부족함이 많은데 수업이 벌써 끝나서 아쉬워. 그리고 가르쳐주느라 수고한 '메리'에게 고마워! 선생님이지만 참 귀여운 것 같아



승창 간사님을 보니까 겁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 근데 난 열심히 안하잖아. 난 안 될거야 아마...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어. 애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을 때마다 기분이 참 짜릿하다고 할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청년들과도 잘 소통해보고 싶어.



아이들과 놀기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한 활동으로는 영화감상, 축구 훈련 동참, 센터 수업 참관, 마을사람들과 만남, 근처 동산 가기, 놀기 등이 있었다.

테라 산타 지역 아이들은 여자애들은 주로 공기놀이를 좋아하고, 남자 아이들은 구슬치기를 좋아했다. 같이 모여서 술래잡기를 하는 것도 좋아했다. 같이 놀고 친해지고 나니 아이들이 귀엽다는 의미로 우리의 볼을 꼬집기도 하고 살짝 만지기도 했다.



처음 만나자마자 말도 안 통하는데 공기놀이도 같이 해주고 얼음땀도 같이 해줘서 고마웠어. 처음엔 의욕적으로 같이 놀았는데 월말이 될수록 같이 노는 게 힘들더라고.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

오후는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야. 처음 말이 안 통했을 때는 아이들과 빠둑(공기놀이) 이랑 술래잡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말이 조금 늘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과 열매를 따다든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여자애들은 빠둑을 제일 좋아해서 매일 “리따 할리마 빠둑!(리따 공기하자!)” 을 외쳐.



그냥 좋은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놀다가 애들 따라서 집도 찾아가고 거기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다보니까 한 달이 훌 지나간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못한 것. 언어가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못나선 것 같아서 아쉬워.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즐겁고 신나는 것도 많았고 애들과 만나게 돼서 좋았어. 처음 본 데다가 외국인인 우리를 좋아해줘서 신기함도 느꼈어. 그런데 좀 폭력적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니까 그대로 뉘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해봐야겠어.





축구경기 관람





3월 23일에는 ymca축구팀과 다른 지역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있었다. 우리 라온아띠 단원들은 축구팀과 함께 경기장에 다녀왔다. 축구 경기는 상대팀 지역에서 이뤄졌는데 그 곳까지는 1시간 반정도 걸렸다. 그 시간동안 남자 단원들은 트럭 뒤편에 타고 티모르의 바람과 햇빛을 마음껏, 실컷, 아주 그냥 막 그냥 느낄 수 있었다.

축구경기 관람은 티모르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YMCA축구팀의 경기인데 테라산타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갔고, 상대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날 밤에는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엠블럼깃발을 휘두르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센터 아이들이 “바르샤! 바르샤!” 외치거나 “레알! 레알!” 외치는 모습이 귀엽고 재밌었다.

P.S 다음날 새벽에 바르셀로나가 이겼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다. 그 바람에 몇몇 단원이 잠에서 깬고 무슨 일이 생긴 걸까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오랜만에 소리 지르고 응원하며 관람한 경기였어. 처음으로 센터 밖에서 아이들과 만나는거라 설레는 마음에 "YMCA bonitu(잘생겼다)" 플랜카드도 만들어갔는데 애들이 좋아해줘서 기뻐.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경기장 가는 길에 잃어버려서 속상하긴 했지만... 축구 보러 같이 간 애들이 평소에 같이 어울리던 아이들이 아니라 어색했는데 아스단에서 배운 YMCA구호를 가르쳐줬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같이 해줘서 고맙고 재밌었어. 특히 아이들이 그 구호를 좋아해줘서 뿌듯했지. 다음날 센터에서 축구부 애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해줘서 좋았어.

"바르샤 바 또바!(바르샤 가서 잠이나 자!)" "레알 크레카스!(레알 부셔져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 깃발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 티모르 사람들은 축구에 미쳐있다고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축구화를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하고 내가 축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 그래도 애들과 이야기 할 때 축구 얘기하면 대동단결이니까 좋네.



나도 한결이와 마찬가지로 바르샤와 레알을 응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 돌아오는 길에 축구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지. 평소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을 즐기는 나에게는 정말 큰 즐거움이었어. 그리고 축구 구경할 때는 평일에 나와 같이 축구를 하는 아이들도 경기를 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랑 같은 소속의 아이들이 경기를 할 때는 집중이 잘 되었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경기를 할 때는 좀 지루했어.

처음에는 YMCA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간다길래 기대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니 이미 지친거야. 그래서 응원을 잘 못해줘서 미안했어. 그래도 일요일에 왔다고 친구라고 해주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 다음에는 열심히 응원해야지!





피스커피 방문



Cafe	Fresh Juice	Soft Drink
* Peace Espresso \$0.50	* Avocado Juice \$1.00	* Ice (Black) Tea \$0.25
* Peace Americano \$0.75	* Pineapple Juice \$1.00	* Coke/Sprite /Fanta \$0.75
* Peace Cafe Latte \$1.00	* Water Melon Juice \$1.00	* Juice box (Orange, Guava, Grape, Apple) \$0.75
* Peace Cafe Cappuccino \$1.00	* Banana Juice \$1.00	* Lipton Ice Tea (Asch) \$1.00
* Peace Cafe Mocha \$1.00	* Tomato carrot \$1.00	* Agua \$0.30
* Chocolate \$1.00	* Orange Juice \$2.00	
* Nescafe (3in1) \$0.25		

Peace coffee' mak halo hamutuk fatin ida ne' hodi hametin kommundade no hanoin ba futuru

Ida. "Peace Coffee" Servisu hamutuk ho toos na
 Rua. "Peace Coffee" Hametin kommundade ba h
 Tolu. "Peace Coffee" Aktividade kultura hamutuk



동티모르 YMCA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정무역커피 사업과 관련하여 딜리에 있는 피스커피 카페에 방문하였다. 피스 커피 카페는 수익보다는 청년들의 모임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더 나은 커피문화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기농 과일과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함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맛은 뛰어나다.

우리들은 얼마 전에 오픈한 카페를 단장하는 일을 도왔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을 반납하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피곤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카페를 더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어서 모두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피스커피를 좀 더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가졌는데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나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막상 같이 하니 잘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꾸미니 너무 예뻐져서 기분이 좋았어.

같이 우리가 간사님들과 함께한 첫 활동이었는데 같이 벽을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 그 시간을 통해서 간사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날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미적 감각을 확인한 날이었어. 피스커피 카페가 한국 뿐만 아니라 티모르에도 있다고 하니 반가웠어. 그리고 근처 티모르 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온다고 해서 티모르 대학가의 핫 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어. 특히 여진이의 창의성에 감탄한 날이기도 해. 생과일 주스도 맛있었어!

보통 공정무역 커피 하면 비싼 가격을 생각하게 되잖아. 그런데 피스커피는 가격이 싼 편이라 놀랐어. 문화공간이 부족한 동티모르 사람들을 위해 이런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아직 문을 연지 얼마 안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아쉽네. 다음에 떼뚱어 실력이 늘어나면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볼까 해.





일상생활





동티모르 팀 규칙

일주일에 한편 씩 함께 영화보기
하루에 한번 함께 사진 찍기

우리들은 세 분의 한국인 간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월초에 생활비를 받아서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을 해결하고 있다. 식사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 근처 티모르 플라자와 슈퍼 마켓 리더, 혹은 로컬 시장에서 장을 봐서 살아가고 있다.



센터에서의 일상과 숙소에서의 일상 모두 신선했어. 요리도 같이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돌아다니며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함께라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일상이 있지만 이번 달 특별한 기억은 마나 제니와 함께 구제시장에 간 일이야. 내가 눈여겨봤던 원피스를 6달러까지 깎았지만 더 이상 깎아주지 않아 6달러에 살 수 밖에 없었어. 원피스는 4~5달러가 적정 수준이지만 외국인이라 좀 더 비싸게 불렀기도 하고 질도 좋아서 만족하고 사기로 했어. 잘 입고 다녀야지! 다음에 보여줄게.



팀원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너무 망나니처럼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다음 달에는 잘할게. 요리라고는 밥하는 법도 모르고 라면 밖에 끓일 줄 모르던 나여서 조금 힘들었어. 같이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요리할 때 걸도는 거 같아서 힘들었어. 그래도 밥하는 것부터 야채 써는 것, 커피 볶고 내리는 것 까지 배우다 보니까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 외식하고 싶다!

지난 한 달은 진짜 즐거웠어. 사실 국내훈련 중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는 게 힘들었는데 막상 현지에 와서 같이 밥해먹고 영화보고 수다 떠는 일상 하나하나가 재밌었어. 모든 걸 다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같이 있는 연습도 되고 모이면 웃을 일이 정말 많아서 재밌었어.





아띠끌라세 준비





우리는 아띠끌라세에 대한 계획을 짜고 ymca 총장님과 미팅을 가졌다. 아띠끌라세는 4월 7일부터 시작되며 과학, 미술, 음악, 게임,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교육 시간 350ppm!

동티모르는 식료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텃밭 가꾸기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기르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YMCA 센터 주변에 텃밭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텃밭 가꾸기를 350ppm 캠페인과 연관된 수업으로 아띠끌라세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 꿀 같았던 한 달이 지나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좀 두려워. 계획 짜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활동이 다 잘 되면 좋겠어!

아띠끌라세 계획을 짜면서 팀원들 개개인의 이곳에서의 목표, 아니면 마음을 적게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곳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



동티모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설부른 판단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고민이 들었어. 우린 잘 하고 있는거겠지?

항상 잘 노는 우리가 가장 냉정해질 때는 회의할 때 같아. 좋은 아띠끌라세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의견과 많은 반박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한 과정이므로 혹시나 마음 상해하는 단원이 없으면 좋겠어.



...상처받았어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어쩌라고 (정색)



개인 코너



A woman with glasses and a white t-shirt with a green floral pattern, wearing a grey patterned apron, is smiling in a kitchen. She is holding a whole cabbage with both hands. The background shows a kitchen counter with various items and a sink.

Ama Jeni의 요리교실

오늘의 요리는?

**우리들의 김치
양배추 절임**



재료 : 양배추 1통, 설탕 한 컵, 물 한 컵, 식초 반 컵

1. 설탕 한 컵과 물 한 컵을 같이 끓여 시럽을 만든다.
2. 시럽이 식는 동안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3. 자른 양배추와 만든 시럽, 식초를 적절히 섞어서 반찬 통에 담는다.
4. 냉장고에 넣고 기다린다.
5. 맛있게 먹는다.

끝^^!



다음 호에 계속

ON AIR



Jeffrey의 보닛파리노 (Bonita radio)



DJ
Jeffrey



<사연 게시판>

안녕하세요 DJ Jeffrey. 저는 보니따리오의 청취자예요.(익명으로 해주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요. 티모르에서의 점심식사에 관한 얘기에요. 저는 티모르에서 3명의 팀원과 3분의 간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서 식사 준비에 조금 더 신경쓰게 돼요. 그래서인지 간사님들이 안계신 날이면 귀찮아서 대충 해먹고 싶어져요. 저는 사실 라면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타국이다 보니 라면이 괜히 맛있고 좋긴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주 라면을 먹는다는거예요. 지지난주에는 간사님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때마다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만 먹으니 지겹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뎅기나 말라리아에 걸릴 것 같았어요. 팀원들이 지금도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네요.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신청곡은 **악동뮤지션**의 <라면인건가>

<진행자의 답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감도 잘 안잡히지만, 우리 팀원 중 한 분이 라면을 자주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나 힘들어 하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항상 라면 먹을 때마다 즐거워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급적 **5대 영양소**를 적절히 분배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요리해 먹는 걸로 팀원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영양소 다 챙겨먹으려면 장볼 때 참 힘들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라면을 너무 자주 먹어 힘들어하는 익명의 **김주희**양을 위해 제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 **짜라짜라짜짜 짜~파게티!**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본 프로그램은 Timor-Leste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정인기씨의 음악 선곡시간을 착안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 호에서는 만나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리다 리따의 티모르뉴스

〈속보〉 Jnei 병에 걸리다!

동티모르 FC YMCA 축구단
새로운 선수 영입하다!

경축! 우디스 간사님
베베낳다!

혼또니 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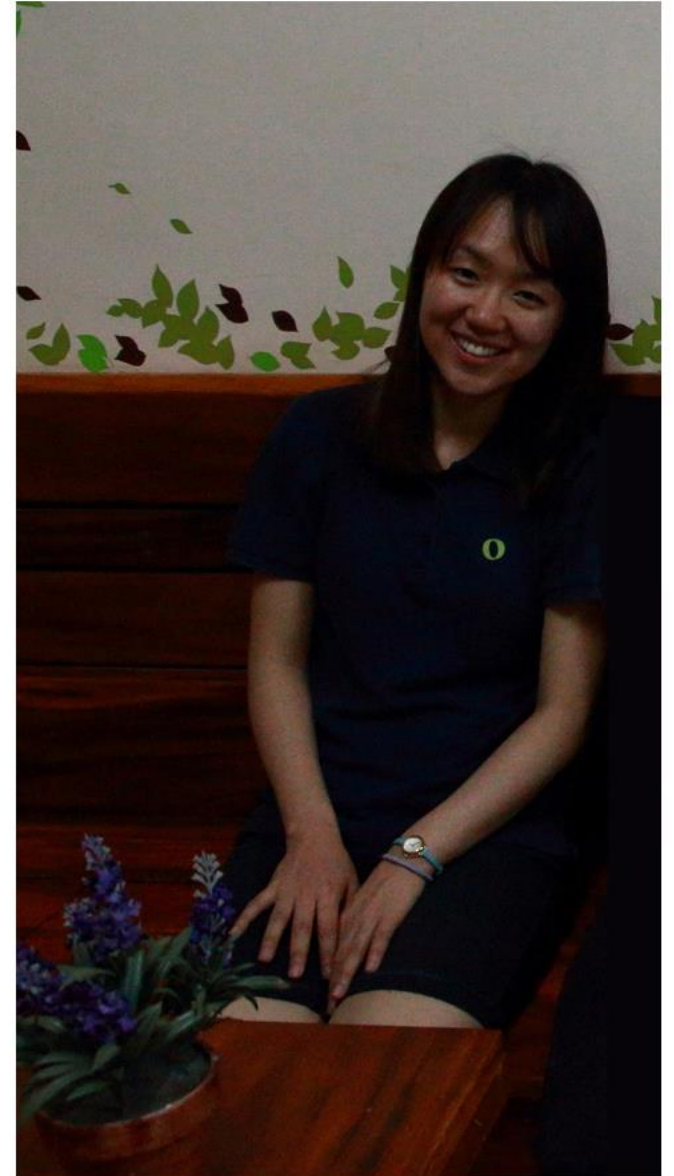


Jeni 병에 걸리다!



〈취재 중 아픔을 견디다 못해 살짝 정신을 놓은 제니씨〉

김주희(티모르 나이 22세/반 티모르인)씨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관해서는 습진vs아토피vs햇빛 알레르기로 의견이 나뉘는데
병원엔 가보지 못해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사님들과 팀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빠르게 낫는 중입니다.
혹시 의사가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정확한 병명을 티모르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축 우디스 간사님 베베낳다!



< Foe(생후 7일)>

2014년 3월 30일 일요일 티모르YMCA의 우디스 간사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별은 남자이고 매우 잘생겼다는 후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foe입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Foe(생후 1일)>



이한결(티모르 나이 22세/Bonitao부르주아)씨가 Hotel LAMELAU 수영장에 다닌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150불이라는 돈을 쿨하게 결제하는 것을 본 정OO씨는 남자가 봐도 반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본 취재진도 Toni (한국이름 이한결)의 수영모습을 지켜본 결과 정말 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Toni nani diak! (토니 수영 짱!)

흔또니 나니?



〈다이빙을 하는 토니씨〉

동티모르 FC YMCA 새로운 선수 영입



〈 YMCA축구단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축구단인 척 하는 Lita〉



〈축구할 땐 한결이와 잘생긴 루카스〉

정인기(티모르 나이 25세/축구할 땐 한결)씨가 동티모르 YMCA 축구단에 영입됐습니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던 Jeffrey(한국이름 정인기)가 축구단을 기웃거리다 영입됐다는 소식입니다. 매일 오후 3시면 열심히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웃통을 벗은 채 축구를 한다는 훈훈한 소문도...

토니의 사진전



• 아바디 유 분 야시 같은 기집애



미니 버스 미끄러져, 오늘도 정류장에 함께 앉아
넓은 버스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기다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앞 사람의 무릎에
닿을 듯한 좁은 좌석에 앉는다.

'쿵쿵쿵' 오래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귀를
찢을듯한 저음의 드럼 소리, 아무렇지 않다는 듯
평온히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멀리서 벽화가 보이고 귀에 꽂아두었던
도전을 꺼내 손잡이를 탕탕 치면

그 소리 속에서 용케 알아듣고 버스를 세운다.

또 다른 오늘의 일상이 시작된다.

- 뽕뽕 뽕뽕해요. 기사 아저씨... -





젊은 애들하고 뛰려니 힘들지 형?

-서른 즈음에-



왠지 다음 달 보고서에는

저 흰 공간에 내 얼굴이

해처럼 합성되어 있을거 같아



dotjak 그만 밀자 빼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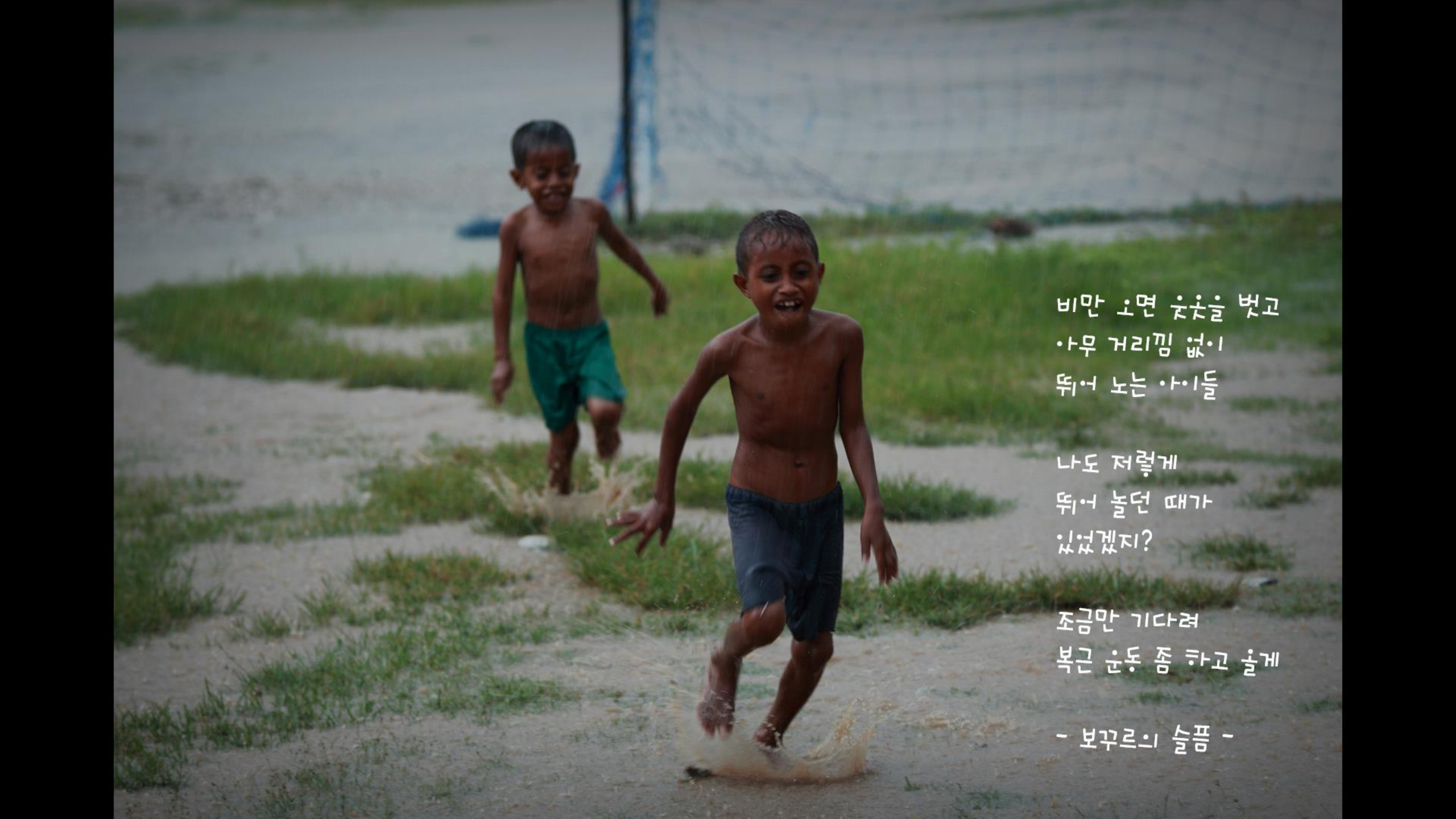


어디 잘생긴 남자 없나?

나?

NAMASTE!
2013 INDIA



A photograph of two young boys running on a sandy beach. The boy in the foreground is wearing dark shorts and is splashing water, while the boy in the background is wearing green shorts. A fishing ne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비만 오면 옷을 벗고
아무 거리낌 없이
뛰어 노는 아이들

나도 저렇게
뛰어 놀던 때가
있었겠지?

조금만 기다려
복근 운동 좀 하고 올게

- 보꾸르의 슬픔 -

개

인

소

강





이곳에 오기 전에 최우선으로 세웠던 **목표**가 있었다.
그건 바로 즐겁게 사는 것! 팀원들과도 간사님들과도
아이들과도! 그 다음이 동티모르에서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이였다. 즐겁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곳에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3월 한 달을 정리하는 글을 써보는 시간이 왔다. 되돌아보면
처음의 목표는 나름 잘 지켜진 것 같다. 출국할 때보다 **팀원들의 사이는
더 친해졌고 가까워졌다.** 서로 배려도 나름 잘하고 있다.(...아직은 과도기인 듯)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니 간사님들과도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아이들과도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의 기분은
무척이나 만족스럽다.

가끔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미치도록 더운 날씨에는 학교를
다니는 일상이(아주 조금) 그리기도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이곳의 생활이
학교 생활보다 더 즐겁기 때문에** 그리다고 생각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곤
한다.

또한, 나는 이곳에서 **유소년 축구단에 입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나의 여흥거리는 축구가 전부이기 때문에(축구경기 시청, 축구 게임, 축구하기) 축구단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싶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 같다. **비록 벌써 몸과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우리 축구단 아이들은 맨날 하얗다고 놀리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

아직 **언어가 많이 서툴러서** 종종 아이들과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못 나누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아쉬운 점이다. 이제 "아띠끌라세"도 시작하니 **떼똥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고작 한 달 지났는데 나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변한 것이 느껴진다. 한국에 돌아가는 8월이 오면 얼마나 더 달라질지 기대가 된다 ☺

(과정은 많이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웃을 일 밖에 없었던 한 달이었다.
첫 주는 미끄롤렛을 타고 센터에 가는 일, 현지인들이 가득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밥을 해먹는 일, 심지어 숙소 대청소까지 **일상의 하나하나가 새롭고 즐거웠다.** 여진이랑 샤휴도 같이 하고 밥도 옆에 앉아서 수다 떨면서 먹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시는 간사님들이 나는 오히려 신기했고 그래서인지 룸메이트끼리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하다.

자기 전에 누워서 떠들었던 것도 즐겁고, 인기오빠랑 한결이랑 여진이랑 다같이 사무실에 모여서 과일 나눠먹고, 카드게임이나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농담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도 즐거웠다.

도착하고 며칠 후부터 생긴 피부병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불편했지만 **나보다 오히려 팀원들과 간사님들이** 약이나 크림을 챙겨주시고 센터 아이들과 센터 간사님들이 아프냐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고 아파서 죄송했다.**

티모르에 도착하자마자 양동화 간사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한국에서 타서 왔냐고 하셨다. 그리고 아빠띠 간사님과 우디스 간사님도 나보고 다른 팀원들에 비해 덜 하얀 편이라고 하셨다. 그때 내가 떼뚱어를 잘 못할 때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나보고 현지인 같다고 하셨던 것 같다. 그때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었는데 최근에 로베따가 다른 팀원들한테는 “말라에(외국인)”라고 하고 **나한테는 말라에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자신한테 말라에라고 하는 게 기분이 안 좋다는 다른 팀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티모르 사람과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부담이 많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많이 배워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그래서 YMCA축구단 경기 관람을 갈 때도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플랜카드도 만들어갔다. 하지만 경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잃어버려서 정작 써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없으니까 부담감 없이 애들이랑 같이 소리 지르며 더 즐겁게 응원할 수 있었다.** 평소에 좋아하는 팀의 축구경기를 보며 응원했던 것처럼 그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어느 날은 매일 야채를 볶고 있는 게 갑자기 짜증나서 기분이 다운되곤 했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장난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풀어지기도 했다. 어떻게 매 순간이 즐거울 수 있겠나. 그렇게 사소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혼자 불편해지고 짜증도 나지만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때론 모여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면서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느 하루는 굉장히 더운데다가 센터 아이들과 노는 게 지겹고 짜증이 나서 혼자 운동장에 멍하니 있다가 마르페한테 장난을 걸며 운동장을 마냥 달렸는데 기분이 풀리기도 했다. **그냥 그렇게 늘 좋게 끝난 것도 참 신기하고 좋은 기억이다.**

3월을 돌아보면서 가장 뿌듯한 점은 활동지침서 속 ‘늘 질문합시다’에 나온 **“나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티모르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by10기 티모르팀)”



처음 공항에서 출발할 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한 달이 지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이번 달은 처음 현지 적응하느라 시간이 빨리 간 것도 있지만 **팀원들과 사이가 좋아**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신기함 반 두려움 반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어느새 적응되어 아침 9시에 미끄롤렛 10번을 타고 센터에 도착하는 것이 너무 항상 해오던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나를 Malae(외국인)라고 부르면 '아니!'라고 부정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동티모르에 **잘 적응하는 내가 대견하기도** 하고 벌써 동티모르에 대한 **신기함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이번 달에 기억에 남는 일은 마을에서 마을 청년들과 이야기하는데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젤리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차고 있는 팔찌가 예뻐서 칭찬하려고 “네가 차고 있는 팔찌 예쁘다.”라고 했는데, 어떤 팔찌가 예쁘냐고 묻더니 그 팔찌를 선뜻 주는 것이다.

내가 안 받겠다고 하자 왜 안받냐고 묻더니 선물이라며 팔찌를 주는 것이다. 나는 고마웠지만 그 다음부터 '나는 그럼 젤리에게 무엇을 줘야하지?' 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주희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며 어떻게 해야하지? 라고 물으니 **너는 선물을 줄 때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냐고 묻는 것이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니, 젤리도 너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줬을 것이라며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다. 또한 선물을 주고 싶다면 그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써가 아니라 젤리에게 순수한 선물로서 나중에 줘도 늦지 않는다는 답을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젤리의 마음을 왜곡시킨 것 같아 미안했고, 지금은 예쁘게 잘 차고 다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게 현명한 답을 내려주고, 내게 매일 과일을 꺾어주고, 매일 수다를 떠는 **Ama Jeny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1. 말라에 말라에...

“**말라에! 말라에!** 가끔씩 아이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며 달려오고는 한다. ‘이 자식들이 같이 논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나를 외국인이라고 불러?’ 발끈해서 “**라 말라에! 토니!**” 라고 외친다. 하긴 외국인이 맞기는 하지... 그래도 외국인보다는 **같이 노는 형, 오빠**로 불리고 싶다 할까?

초반에는 마냥 좋았다. 단기 해외봉사 때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도 있었고,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 온갖 주목을 받으며 다녔기에.. 하지만 어느 날 나와 항상 같이 놀던 아이가 외국인 사진을 보여주며 “말라에, 말라에, 난 말라에가 좋아”라고 하는 것이었다. 동티모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NGO들이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동티모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활동은** 시시하고 멋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여태 받았던 행복했던 느낌은 한국에서 잘 받지 못하던 주목을 받게 되어 그런 것은 아닐까” 여태 이런 **느낌에 취해** 여행과 해외봉사를 다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또 내가 하고 있는 라온아띠 활동들이 외국인들과의 활동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고민 중**이다.

2. 설부른 판단

귀여운 아이들에게 뺨을 살짝 맞으며 ‘아유 귀여운 자식들’ 하지만 좀 큰 아이들에게 **불꽃 뺨 싸다구**를 여러 대 맞으면 두 주먹을 꽉 쥐게 된다. 동티모르 사람들은 **귀엽다는 의미**로 뺨을 톡치고는 한다. 간사님은 이 행동이 가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바뀌어야하는 문화**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폭력은 항상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계획을 짜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비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보았다. 하지만 동티모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설부른 판단으로 그들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제**하자는 반대의견을 들었다. 실제로 나는 그랬다. 그저 폭력은 나쁘다는 생각과 간사님의 말씀만 듣고 그들이 여태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보려 했으니까. 나는 여태 많은 곳에서 그런 설부른 판단을 내려오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는 조금 더 동티모르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3. 나의 라온아띠 훈련 목표 첫 번째

‘**아 정말 계속 생각 나누고 회의하는 것 힘들어 못해먹겠네.**’ 어디에서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라온아띠 국내훈련 기간 동안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것은 동티모르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4명이 함께 지내다보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외면할 수도 없다. 나는 라온아띠라는 훈련의 목표를 첫 번째로 **헛소리라도 마구 질러보기로 했다.** 처음엔 논리도 제대로 없는 소리겠지만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는가? 하다보면 **좀 늘지 않을까?**



다음 달에 만나요 😊